

비판할 땐 상대의 강점 파고들어라, 약점 탐닉하면 하수

김영민의 공부란 무엇인가 토론의 기술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이 처음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누군가 그 주제 혹은 그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이미 연구한 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새삼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새삼 그 주제를 연구한다면, 그는 기존 연구를 수정 혹은 보완하고자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는 '비판적'이다. 학술 논문에 종종 포함되는 연구사 검토는 그러한 비판을 위한 장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사 검토를 생략하는 논문은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비판은 글뿐 아니라 말에도 필요하다. 누군가의 구두 발표가 완전무결하다면, 그에 대해 찬사를 연발하며 폭죽을 터뜨리면 된다. 그러나 완전무결한 발표는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미래의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거나, 폭넓은 함의를 함께 음미해볼 수 있다. 논문 발표에 따르는 질의 토론 시간은 그러한 비판적 검토를 위한 장이다. 질의 토론 시간이 없거나 소략한 발표회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쇼나 사교의 장에 가깝다.

◇공격성 드러내는 건 미성숙하기 때문=진지한 비판과 토론이 없을 경우, 학술의 장(場)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원로를 존경한다는 미명하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미명하에, 동료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미명하에, 학술적 엄격성 자체를 훼손하는 '덕담' 들을 다 받아들일 경우, 해당 학술의 장이 결국 도달한 곳은 뻔하다. 세상 어딘가에는 덕담으로 일관하다가 망해버린 학계가 있을 것이다. 시시한 덕담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지키라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 토론의 장에서 느닷없이 영세종립국 선언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중립이 어떤 지성을 드러내는 신중함(prudence)인 경우라면 모를까, 그저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무관심 혹은 무지성의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중립을 선언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중립을 선언했다기보다 지성의 영세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비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말을 비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밉상이면, 그의 주장뿐 아니라 숨 쉬는 모양새까지 비판하고 싶을지 모른다. 상대가 알뜰하다는 이유 하나로 인신공격을 일삼거나, 말을 향해 짓는 개처럼 개껌스럽게 비난을 쏟아내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격적(aggressive) 논평과 예리한(sharp) 논평은 다르다. 예리한 비판을 제기할 순간에 불필요한 공격성을 드러내면, 그것은

미성숙의 표지일 뿐이다. 비분강개할 장소는 따로 있다. 맛없는 디저트를 파는 카페 탈지, 마스크를 하지 않는 극장이탈지,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감정의 표출은 그다지 쓸모가 없다.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것과 상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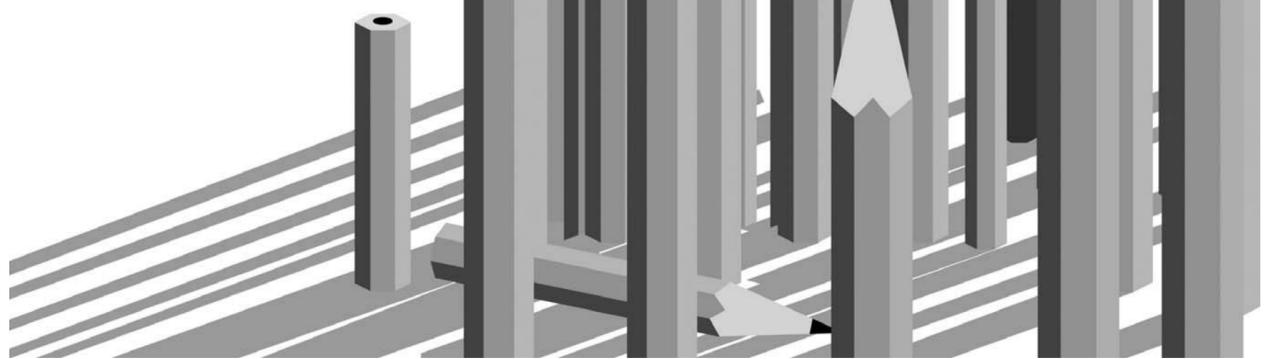
사정이 이러할진대, 활력 있는 학술의 장을 유지하려면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 모두 일정한 덕성이 필요하다. 비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어떤 덕성이 필요할까? 일단 정당한 비판을 감내할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하다.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과 '한 패거리'로 모든 토론자를 채우거나 하는 것은 용렬한 것이다. 제대로 된 비판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음이 약간 비슷하다는 이유로 당신이 '막스' 베버와 칼 '막스'의 주장을 혼동한달지,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뜰 것이다. 그 침묵이 어찌 당신에 대한 존중이겠는가. 상대를 무시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쳐주거나 침묵하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비판한다.

물론 비판을 감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비판을 접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나머지 그 비판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과 그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은 분석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양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대의 정당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느껴진 나머지,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싶을 수도 있다. 비판을 수용하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억지를 부려서라도 반론에 나서고자 하는 욕망이 휩쓸릴 수도 있다. 아, 저 비판을 뜨거운 기름에 튀겨 버리고 싶다! 아, 저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 자체보다도, 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처하는 자세야말로 자신이 용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이다. 결함으로 인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결함을 인정할 때뿐이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덕성이 필요한가. 첫째, 상대 주장의 약점보다는 강점과 마주하여 비판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상대의 핵심 주장에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보인 약점에 탐닉한 나머지 그것을 상대의 '본질'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하수들일수록 상대의 하찮은 약점에 탐닉한다. 형사물에서 시체가 등장하면, 그 시체를 둘러싼 드라마에 집중해야지, 시체

진지한 토론 없으면 학계 타락
중립은 무관심·무지성 선언 의미
그렇다고 막말=비판 혼동 말아야

강점 없으면 용기 칭찬하면 그만
비판은 되도록 간단명료해야
건설적 제언·대안 함께 제시를



역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짝퉁이고 있는지만 집요하게 살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무런 강점도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완벽하게 못생긴 사람이 없듯이, 완벽하게 오류로만 점철된 주장은 드물다. 기를 쓰고 상대 주장의 강점을 찾아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점을 찾아내 즐기는 패티시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상대의 주장에서 강점을 영 찾을 수 없으면, 이토록 형편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용기 자체를 칭찬하면 된다.

◇"비판만 하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어=둘째, 비판을 불필요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신의 평소 입장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것은 금물이다. 주인공은 당신의 비판이 아니라 상대의 발표

이다. 특히 시간이 한정된 발표회장에서는 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발표는 길고 생각은 짧습니다"랄지. 그러나 비판을 간명하게 한답시고 가능한 대안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비판이나 비난, 불평만 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고, 대다수의 바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가능하다면 건설적인 제언이나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대안이 곧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명정한 주장에 대해 더 명정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의 주장을 검토할 때 보이는 엄격성을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셋째,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언사를 남

발해서는 안 된다. 작업에 대한 평가와 작업자에 대한 평가를 가능한 한 구분한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도 건설적인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서, 상대를 꼭 쓰레기라고 공개적으로 부를 필요는 없다. 잔인한 것은 이 우주만으로도 충분하다. 중국 쓰촨성 루구호 주변에서 사는 모소족 사람들은, 상대가 싫으면, "너는 나에게 이 나뭇잎처럼 가볍다"는 뜻으로 손바닥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는다고 한다. 이제부터 논문 발표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논문이 발표되면, 그에 대해 폭언을 퍼붓는 대신, 손바닥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는 거다. 나뭇잎이 없다면 무말랭이라고 올려 놓는 거다.

끝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비판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다. 활자화된 주장은 뚝뚝함이나 명정함을 대대로 호호하는 최고의 수단이니, 언젠가는 자신의 뚝뚝함이나 명정함을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민-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대학 교수를 지냈다. 영문저서로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2018)가 있으며, 에세이집으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가 있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사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기사입니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